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4월 3주 ~ 4월 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 산업 생산, 3월 전년 대비 9.4% 증가로 예상 상회(4.22)
 - 통계청(GUS)은 2026년 3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9.4% 증가, 시장 예상치 대비 5.2%p 상회한다고 발표
 - 전월 대비 기준 17.2% 증가, 단기 생산 활동이 큰 폭으로 확대
 - 이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 회복과 함께 내수 및 수출 수요가 동시에 개선된 결과로 해석 가능
 - 다만 유럽 통계청(Eurostat) 기준 2026년 2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0.3% 증가에 그쳐 지표 간 차이 존재
 - 전반적으로 폴란드 산업 부문은 2026년 1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, 단기 경기 반등 신호로 평가됨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 2025년 경제 성장률 1.8% 기록, 무역적자 확대·인플레이션 상승 지속(4.20)
 - 우크라이나 통계청은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을 1.8%로 발표, 4분기 성장률은 2.8%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
 - 2026년 1~2월 경제는 -1.2% 역성장하며 단기 경기 둔화 조짐 확인
 - 2026년 1~2월 무역적자는 1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억 달러 확대, 대외 불균형 심화
 -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1.7%, 전년 동월 대비 7.9% 기록
 -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1.5%, 전년 대비 7.1%로 물가 상승 압력 지속

- 식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(1.3%), 특히 계란 가격이 7.7% 급등하며 물가 상승 견인
- 의류·신발 가격은 12% 상승, 운송비도 연료 가격 상승(13.2%) 영향으로 6.4% 증가
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3월 19일 기준금리를 15%로 동결, 물가 상승을 대응 기조 유지
- 2026년 3월 외환보유액은 548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감소하며 대외 완충력 일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

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폴란드 고속철도(HSR) 사업 첫 구간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(4.14)
 - 폴 중앙교통공사(CPK)가 추진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첫 구간 (Kotowice-공항 청사, 약 13km)에 대해 경쟁적 대화 방식의 시공사 선정 절차 개시
 - 총 17개 기업이 6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으며, 주요 참여 기업으로 Budimex, ZUE·Duna Polska·Polaqua 컨소시엄, Torpol·Mirbud·Kobylarnia 컨소시엄, PORR 포함 컨소시엄 등 다수 역내외 건설사 참여
 - 본 사업은 Warsaw - Łódź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핵심 구간으로, 향후 Poznań 및 Wrocław까지 이어지는 'Y자형' 국가 철도망 구축의 일부
 - 입찰 사전심사에서는 시공 경험(특히 폴란드 내 실적)과 폴란드어 역량 등이 주요 기준, 입찰 평가 기준은 가격 및 보증기간으로 설정
 - 향후 일정은 2027년 4분기까지 경쟁적 대화 종료, 최종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예정
 - 해당 노선은 설계 최고속도 350km/h 수준으로 건설되며, 25kV 교류 전력 방식 등 신규 철도 기술 표준 적용 예정
 - 총 연장 약 120km 규모의 바르샤바 - 우치 구간은 5개 추가 공구로 나뉘어 순차 발주 예정이며, 신호·통신(SRK), 전력 및 가공전차선 등 별도 시스템 공사도 병행 추진

- 사업 일정상 바르샤바 - 우치 구간은 2032년 개통(신공항 개항과 연계), 이후 2035년까지 포즈난·브로츠와프까지 확장 계획
- 동 사업은 중동부 유럽 최초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로, 국내 건설사 참여 확대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

○ PGE, Gryfino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ESS) 사업 시공사 선정(4.14)

- PGE 산하 PGE Energia Odnawialna가 그리피노(Gryfino) 지역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설(ESS) 건설 시공사로 SPEC BAU Polska 및 EL Professional 컨소시엄을 선정
- 해당 시설은 최대 400MW, 최소 800MWh 규모로 설계되는 폴란드 최대급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
- 사업지는 기존 가스복합발전(1,366MW) 및 신규 가스발전(약 600MW) 설비가 위치한 에너지 허브 지역으로, 전력 계통 안정화 거점 역할 강화
- 본 프로젝트는 17년 장기 용량시장 계약을 기반으로 수익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
- 총 계약 금액은 약 1,142백만 PLN 규모이며, 설계·조달·시공(EPC) 일괄 Turn-key 방식으로 진행
- 시설은 2028년 말 가동 목표로 추진되며, 완공 시 폴란드 최대 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설비로 운영될 예정
- 저장시설은 전력 수요 변동 대응, 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, 계통 주파수 조정 등 핵심 전력 인프라 기능 수행
- 인근 발전 설비와 결합된 복합 에너지 허브 형태로 운영되어 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에서 가스·재생 기반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
- PGE는 이미 Żarnowiec ES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, 이번 사업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장의 후속 단계로 평가
- 전반적으로 폴란드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의 핵심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

○ 폴 1호 원전 건설사업, 투자자 주도 보험 프로그램 도입 추진(4.14)

- 폴 국영 원전 기업 PEJ가 폴란드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대상으로

Owner Controlled Insurance Program(OCIP) 방식의 통합 보험 체계 구축 추진

- OCIP는 발주자인 PEJ가 건설 관련 핵심 보험을 직접 설계·조달·관리하는 구조로, 프로젝트 전 참여 기업을 단일 보험 체계로 포괄하여 리스크 관리 일원화
- 이를 통해 보험 적용의 일관성 확보, 비용 통제 강화, 투자 안정성 제고 및 대형 복합 프로젝트의 리스크 최소화 효과 기대
- PEJ는 이미 Aon Polska, Marsh, GrECo Polska, Smartt Re 등 보험 중개사와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조달 지원 체계를 구축
- 보험 프로그램은 건설 참여 모든 계약자 및 하청업체를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, 초대형 인프라 사업 특유의 다층 리스크를 통합 관리
- 보험 체계 구축은 약 2천억 PLN 규모로 추정되는 원전 건설 금융 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평가
- 건설 부지는 Lubiatowo-Kopalino(Choczewo)에 위치하며, 총 3기 AP1000 원자로(총 3,750MWe)로 구성 예정
- 사업 일정은 2027년 건설 인허가 신청, 2028년 착공, 2036~2038년 순차 상업운전 개시 계획
- 최근 공사 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조사 중이며, 원전 부지 자체와 직접적 연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
- 전반적으로 이번 보험 프로그램은 원전 건설 단계에서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, 향후 폴란드 원자력 산업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 있음

○ 폴 Elemental Holding, EIB으로부터 Polvolt 프로젝트 최대 1억 달러 금융 지원 검토(4.14)

- Elemental Holding이 추진 중인 Polvolt 희소금속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해 European Investment Bank(EIB)가 최대 1억 달러(약 87백만 유로) 규모의 금융 지원 가능성을 예비 검토
- Polvolt 프로젝트는 폴란드 Zawiercie에 구축되는 전자폐기물(e-waste)

기반 구리 및 핵심 금속 회수 시설로, 유럽 전략 광물 공급망 강화가 핵심 목표

- 폐전자제품에서 구리, 귀금속 등 고부가가치 금속을 회수하여 EU의 핵심 원자재 의존도 및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순환경제형 산업 인프라임
- EIB의 참여는 해당 프로젝트가 EU 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핵심 원자재 전략(Critical Raw Materials)에 부합함을 의미
- Polvolt는 이미 EU로부터 두 차례 보조금(총 4억 달러 이상)을 확보, EU 핵심 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 전략 프로젝트로도 지정된 상태
- 현재 단계는 사전 신용평가(preliminary credit assessment)로, 최종 승인 및 대출 계약 체결 전 검토 과정
- 해당 시설은 전자폐기물 처리 및 금속 회수 고도화를 통해 유럽 내 전략 광물 자급률 제고 및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

○ 폴 Murapol, 2026년 주택 판매·공급 전략 및 토지 투자 계획 발표(4.14)

- 폴 상장 부동산 개발사 Murapol이 2026년 약 3,300세대 판매, 3,000세대 인도 목표를 제시하며 안정적 분양·공급 균형 전략 유지 계획 발표
- 신규 공급을 판매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'포트폴리오 합리화' 전략을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, 일시적으로 최대 4,500호까지 확대 가능하나 5,000호 이상 확장은 지양
- 2026년 토지 매입 예산은 최대 3억 PLN으로 설정, 향후 2~3년간 대도시 집중 전략을 위한 토지은행 확보에 적극 투자 예정
- 2025년 기준 판매량은 3,140세대이며, 2026년 1분기 판매는 953세대로 집계되어 안정적인 초기 실적 유지
- 현재 약 16개 도시에서 약 4,200세대 규모 재고를 보유 중이며, 신규 공급은 점진적으로 도시권 집중 구조로 전환 중
- 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2024년 이후 이어진 '수요자 우위 시장(buyer's market)'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토지 시장에서는

중소 개발사 위축으로 공급자 우위 전환 가능성 존재

- 재무적으로는 향후 3년간 투자에 충분한 자금 조달을 확보했으며, 특별한 인수합병 기회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유지 전망
- 배당 정책은 연결 순이익의 최소 75%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, 추가 확대보다는 토지 확보 및 개발 투자에 우선 배분
- 중동 지역 분쟁은 주택 판매에는 현재까지 영향이 없으나, 최근 건설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일부 반영되는 등 비용 측면에서 제한적 영향 발생

○ 폴, 공간계획법 개정안 의결로 지자체 '일반계획' 이행 기한 연장(4.14)

- 폴 정부가 국방부 및 경제·개발 부처 협의를 거쳐 공간계획 및 개발법 (SPATIAL Planning Act) 개정 초안을 승인하며 지자체 도시계획 의무 이행 기한을 연장
- 핵심 내용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도시 '일반 계획(General Plan)' 제출 기한을 2026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
- 일반계획은 기존 도시 개발 조건 및 공간구조 계획을 대체하는 디지털 기반의 법정 도시계획 문서로, 국가 공간계획 체계 개편의 핵심 요소
- 기존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기존 도시계획 체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, 약 2개월 유예 조치가 반영됨
- 이번 개정으로 약 4백만 건에 달하는 개발조건 결정(건축·토지개발 인허가 등)은 유효성을 유지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
- 정부는 지방정부의 행정·기술적 준비 부족을 고려해 전환 기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설명
- 공간계획 개혁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시작된 장기 구조 개편으로, 디지털 기반 도시계획 시스템 전환 및 토지 이용 규제 표준화가 핵심 목표
- 재정 측면에서는 EU 재건 기금과 연계되어 도시계획 개혁 이행 속도와 자금 집행이 연동된 구조
-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 개혁의 속도 조정과 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완충 장치로 평가됨

○ 폴란드, 원전 연계 철도 인프라 구축 본격화(4.16)

- PKP Polskie Linie Kolejowe(PKP PLK)는 원자력 발전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철도 230호선(Wejherowo - Choczewo 구간) 현대화 사업 입찰을 2026년 4분기에 추진 예정
- 본 사업은 Lubiatowo-Kopalino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로, 북부 포모제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도 병행
- 총 약 35km 구간 철도 현대화 및 신규 역·정거장(Orle, Góra Paradyż, Rybno Kaszubskie 등) 건설 포함, 30년 이상 중단된 노선 운행 재개 예정
- 전 구간 전철화, 최신 철도 제어 시스템 도입, 교량·고가·지하차도 등 48개 구조물 신·개축 및 16개 철도 건널목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
- 사업 완료 시 여객열차 최대 160km/h, 화물열차 최대 120km/h 운행이 가능해져 원전 건설 자재 운송 및 운영 물류 효율 대폭 개선 기대
- 해당 프로젝트는 총 32억 PLN 규모 원전 접근 철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,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며 전체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30년
- 시공사 선정은 2026년 말, 공사 완료는 2029년으로 예정, 기존 대체 노선(229호선) 개보수 사업과 병행하여 단계적 철도망 확충 진행
- 본 철도 인프라는 향후 원전 중심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, 물류·건설·지역개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

○ Orlen, 'New Chemistry' 프로젝트 재편 및 투자 승인(4.17)

- Orlen 이사회, 총 358억 PLN(금융비용 46억 PLN 포함) 규모의 'New Chemistry' 프로젝트 수정안 승인
- 프로젝트 핵심은 Płock 내 연산 74만 톤 규모 에틸렌 생산 설비(올레핀 플랜트) 건설이며, 2029년 완공·2030년 상업 가동 목표
- 기존 Olefin II 설비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설비로 전환하여 석유화학 생산 구조 전면 현대화 및 에너지·배출 효율 개선 추진
- 당초 약 83억 PLN → 250억 PLN → 최대 510억 PLN까지 비용이

급증하며 재무적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되었으나, 투자 범위 축소·일정 조정·기존 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약 160억 PLN 비용 절감 및 약 150억 PLN 잠재 손실 회피

- 프로젝트 재설계를 통해 현실적인 일정 및 실행 가능성 확보, 계약상 위약금 리스크도 완화
- 폴란드 기업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, 국내 기업들이 최대 210억 PLN 규모 수주 기회 확보 전망
- 중장기적으로 2035년 기준 연간 약 6억 PLN 추가 EBITDA 창출 예상, 2024년 매출 2,969.5억 PLN 규모의 Orlen 전략 내 석유화학 고도화 및 다각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
- 해당 프로젝트는 Płock을 폴란드 및 유럽 내 첨단 석유화학 허브로 전환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됨

○ PSE, Nysa 변전소 1단계 건설 완료(4.16)

- PSE, 남부 폴란드 핵심 전력 인프라인 220/110kV Nysa 변전소 1단계 건설 완료 및 220kV Zabkowice - Groszowice 송전선 연계
- 변전소는 Nysa 인근 Hanuszów 지역에 건설되었으며, 국가 송전망 안정성 강화 및 전력 공급 신뢰도 제고에 기여
- Wałbrzych 경제특구(라지코비체 지역) 내 신규 산업 투자기업 및 대규모 전력 수요처 연결 기반 확보
- 주요 설비로는 ▲220kV 및 110kV 옥외 스위치기어 ▲275MVA급 220/110/15kV 자가변압기 2기 ▲보호·제어·통신 자동화 시스템 포함
- 총 사업비 약 185백만 PLN 중, 1단계(69.9백만 PLN) 완료(이 중 EU 지원 약 18.9백만 PLN), → 2단계(115백만 PLN)는 향후 추진 예정 (지원금 약 45.7백만 PLN)
-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및 ESS 연계 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계
- PSE는 약 14,000km 송전망과 100개 이상의 변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송전사업자로, 본 프로젝트는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전력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

- 폴 Central Energy Group, Konin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발표(4.16)
 - Central Energy Group(CGЕ), 중부 Konin에 260MW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발표(총 투자 약 30억 유로)
 - 전력 연결 및 환경 인허가는 확보 완료, 건축 허가는 미확보 상태이며 전략적 투자자 유치 후 2027년 착공 예정
 -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구축되며, 인근 발전 인프라(태양광·석탄 발전소) 및 에너지저장장치(BESS)와 연계한 전력 공급 구조 설계
 - 추가로 수백 M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및 저장시설 병행 구축 계획 포함
 -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시스템 도입 검토, 다만 수요 감소로 필요성 재평가 진행 중
 - CGE는 현재 태양광(2MW) 및 육상풍력(18MW) 자산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개발사로, 데이터센터-에너지 통합형 인프라 사업 확대 추진 중
 - 본 프로젝트는 최근 폴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흐름(Choczewo 3.4GW, Bełchatów 500MW 등)과 맞물려, AI·클라우드 수요 증가 대응 및 중동부 유럽 데이터 인프라 허브화 흐름을 반영한 투자로 평가됨
- 폴 PCC Intermodal, 제슈프 인근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추진(4.16)
 - PCC Intermodal, 남동부 Ropczyce 지역에 369백만 PLN 투자하며 컨테이너 환적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추진
 - EU로부터 약 148백만 PLN 보조금 확보,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투자로 진행
 - 프로젝트는 약 13헥타르 부지에 터미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며, 2016년 부지 확보 및 지자체 협의 시작
 - 2026년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착수, 계약 체결 후 약 24개월 내 공사 완료 목표
 - 입지는 Rzeszów 서쪽 약 30km, 크라쿠프 - 타르누프 - 제슈프 축에 위치하며,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km 거리의 전략적 물류 거점
 - 향후 도로 인프라 확충과 연계되어 철도·도로 복합운송 효율성 제고 및 동유럽 물류 연결성 강화 기대

- 본 사업은 EU 지원을 기반으로 한 국제 물류 허브 구축 및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로 평가됨

○ Energa Group, 포메라니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태양광 사업추진(4.16)

- Energa Group,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GW 돌파 및 추가 확장 지속 추진
- Kościerzyna 지역 'PV Łosienice' 태양광 발전단지(39.9MW) 계통연계 공사 완료, 2026년 내 상업운전 예정
- 약 6.5만 개 태양광 패널·95개 인버터, 43ha 규모로 구축되며, 연간 2만 가구 이상 전력 수요 충족 가능
- 전력은 Kościerzyna 전력공급지점(GPO)을 통해 송전망에 연결되며, 시운전 및 최종 인허가 절차 진행 예정, EPC(설계·조달·시공)는 Electrum이 수행
- 동 프로젝트는 Energa가 추진 중인 약 300MW 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
- 추가적으로 태양광 중심 약 1GW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, 풍력발전 약 46MW도 병행 추진
- Energa는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약 55%로 폴란드 내 최고 수준, 2025년 1~3분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약 1.1TWh 기록
- 약 20만 km 배전망과 340만 고객 기반 보유, 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1/3(10GW 이상)이 Energa 배전망에 연결
- 해당 투자는 Orlen 그룹 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전력 공급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됨

○ 폴 Green Capital, Electrum과 80MW BESS 구축 계약 체결(4.20)

- 폴란드 재생에너지 개발사 Green Capital이 자국 EPC 기업 Electrum과 80MW/320MWh 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BESS) 건설 계약 체결
- 프로젝트는 폴란드 Lwówek Śląski 지역에 구축되며, 2026년 2분기 착공, 2027년 3분기 상업운전 개시 목표
- 계약 범위는 EPC 전 과정과 전력망 연계를 포함하는 Turn-key 방식

- Electrum의 자체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 효율 최적화 및 성능 관리 고도화 예정
- 추가로 5년간 운영·유지(O&M) 계약 및 장기 서비스 계약(LTSA) 포함, 장기적 운영 안정성과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
- Green Capital은 Sun Capital Polska 그룹 계열로 폴란드·남아공·아르헨티나에서 재생에너지 및 저장사업을 전개 중
- Electrum은 약 400개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3GW 이상 운영 자산, 4GW 이상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실적 보유
- 전반적으로 본 사업은 폴란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

○ 폴란드 - 리투아니아 제2 전력 연계 'Harmony Link' 프로젝트 추진 현황(4.21)

- 폴 국영 전력기업 PSE는 폴란드 북동부 지역 신규 변전소 2곳 (Norki, Wigry)에 대한 환경 인허가를 확보, 폴란드 - 리투아니아 간 두 번째 전력 연계 사업(Harmony Link) 추진 본격화
- Harmony Link는 기존 LitPol Link에 이은 추가 연계망으로, 양국 전력계통 연결 강화 및 발트 지역 - 유럽 대륙 전력망 통합 심화 목적
-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폴란드 측 약 100km 구간 220kV 지중 케이블 (Elk Bis - 국경) 건설, 400/110kV Elk Bis 변전소 확장, 기존 Ostrołęka - Elk 송전선 현대화 포함
- 송전선로는 Via Baltica 인근을 따라 배치하여 주거·농업·산림 지역 영향 최소화, 총 6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
- 본 사업은 폴란드 북동부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및 공급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, 국경 간 연계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
- 또한 고속철도 건설 및 Suwałki 특별 경제구역 산업 수요 대응 등 지역 경제개발 기반 인프라 역할 기대
- 현재 기술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병행 진행 중이며, 2027년 변전소 착공, 2028년 케이블 라인 건설, 2030년 말 최초 송전 개시 목표

- 본 프로젝트는 EU의 Connecting Europe Facility 지원을 받는 공동 에너지 인프라 사업으로, 발트 3국의 유럽 대륙 전력망 동기화(2025년 완료) 이후 후속 통합 단계로 평가

○ ORLEN Termika, 하수열 회수 기반 친환경 난방 프로젝트 추진(4.21)

- ORLEN Termika는 국립 환경보호·수자원관리 기금(NFOŚiGW)과 협약을 체결하고, 바르샤바 Żerań 펌프장 하수열 회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약 125.4백만 PLN 규모 보조금 확보
- 본 사업은 바르샤바 상·하수도 관리공사와 협력하여 미처리 하수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첨단 기술 적용 프로젝트로, 폴란드 에너지 부문 내 혁신 사례로 평가
- 하수열 회수 시스템은 기존에 버려지던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,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친환경 난방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
- 프로젝트 완료 시 연간 약 6.2만 톤 CO₂ 배출 저감(약 3% 이상 감소 효과) 및 석탄 사용량 약 13.8% 절감 기대, 바르샤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기여
- 사업 기간은 2026~2029년이며, 2030년부터 Żerań 열병합발전소(CHP)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열 공급 본격화 예정
- 향후 Siekierki 열병합 발전소, Czajka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 계획, 2030년까지 열펌프 설비 총 용량 182MWt, 2034년 약 250MWt까지 확대 목표
- 해당 사업은 바르샤바 난방 시스템 탈탄소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, 2035년까지 석탄 기반 열생산 완전 중단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됨

○ Tauron, 폴란드 맥도날드와 수력 중심 재생에너지 PPA 체결(4.21)

- Tauron Polska Energia는 McDonald's 폴란드 매장에 연간 최대 100GWh 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(PPA) 패키지 체결
- 계약 기간은 2026~2030년으로, 폴란드 내 직결 배전망 매장 및 일부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

- 본 계약은 수력발전뿐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풍력·태양광 PPA와 연계하여, 복수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하는 '다중 에너지원 포트폴리오' 구축이 특징
- Tauron은 맥도날드의 모든 PPA를 통합 관리하고, 시장 기반 전력 조달 및 수급 조정 서비스를 제공, 자회사 Tauron Sprzedaż이 전력 판매 및 수급 균형 담당
- 맥도날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0.4% 감축 목표를 추진 중이며, 폴란드 내 600개 이상 매장 및 연간 약 40개 신규 출점 계획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
- 이번 계약은 맥도날드의 탄소중립 전략 대응과 동시에,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활용 확대 및 기업 고객 대상 PPA 시장 성장 사례로 평가됨

○ 폴란드 Polimery Police 공장 투자 관련 검찰 수사 착수(4.21)

- 폴란드 야당인 법과 정의당(PiS) 소속 정치인들이 Polimery Police 투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 개최
- Szczecin 지역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을 수용하여 수사 착수 결정, 기존 Tarnów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 예정
- PiS 측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사결정이 투자 가치 훼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주요 쟁점 제기
 - 국제중재 절차 철회 및 시공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
 - 생산 일시 중단 및 시공사 Hyundai Engineering과의 계약 갈등
 - 정부 인사 발언이 기업 가치 및 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
- PiS는 정부에 대해 △Orlen과의 거래 과정 전면 공개 △금융감독당국 및 검찰의 내부정보 이용·주가조작 여부 조사 △책임자 규명 △고용 보호 및 지역사회 비용 전가 방지 △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요구
- 한편, Grupa Azoty는 2025년 12월 이전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으며, Tarnów 검찰이 2026년 2월 수사 개시
- 해당 사안은 대형 화학 플랜트 투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, 기업 가치 훼손 여부 및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

○ 폴 최대 태양광 발전소, 전력 계통 수급 조정 시장 참여 개시(4.22)

- 폴란드 Zwartowo 지역 204MWp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폴란드 국영 송전망 운영사 PSE에 전력 수급 조정 서비스 제공 개시
- 해당 발전소는 폴란드 최대 규모 태양광 설비로, 대규모 PV 설비 중 최초로 계통 수급 안정화 시장 참여 승인 획득
- 사업 운영사 Goldbeck Solar에 따르면, 태양광 발전의 수급 조정 시장 진입은 기술·규제·운영 측면에서 높은 진입장벽 존재
- 약 14개월에 걸친 인증·준비 과정 동안 계통운영자, 규제기관 및 시장 참여자와 긴밀한 협력 수행
- 초기 제공 서비스는 자동 주파수 복구 예비력(aFRR)으로, 5분 이내 계통 주파수(50Hz) 안정화 대응 기능 수행
- 추가적으로 수동 주파수 복구 예비력(mFRR) 및 대체 예비력(RR) 서비스도 계약되어 단계적 확대 가능
- 전력 수급 조정 시장 참여를 통해 단기적으로 최대 약 10%, 장기적으로 약 4% 수준의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
- 또한 계통 운영자의 출력 제한 리스크 감소 및 발전 운영 예측 가능성 제고
- 전력 판매는 Respect Energy가 담당하며, 발전량 관리 및 시장 연계 수행
- 프로젝트에는 Emerson(원격 LFC 노드), Energopomiar(성능 검증) 등 기술 파트너 참여
- 이번 시장 진입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유연성 기여 확대 및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해 전력시장 내 역할이 '수동적 공급자'에서 '능동적 계통 자원'으로 전환되는 사례로 평가됨

○ Enea, ESS 1.4GW 확보 및 2026년 CAPEX 90억 PLN 확대(4.22)

- Enea 그룹은 약 1.4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(ESS) 계통 접속 용량을 확보, 독립형(고·중전압) 및 태양광 연계형 하이브리드 설비를 포함
- 저장장치 구축을 위한 조달 절차는 2026년 중 진행 예정이며, 2027년 1~2분기 착공 후 약 70% 설비를 2027년 내 가동, 2028년 상반기 전체 완료 목표

- 2026년 총 CAPEX(자본적 총지출)는 약 90.8억 PLN으로 계획, 발전 부문 (46%, 약 42억 PLN), 배전(36%, 약 33억 PLN), 재생에너지(6%, 약 5억 PLN), 광업(9%, 약 8억 PLN) 등에 배분
 -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은 2027년 추가 확대 예정으로, 에너지 전환 및 전원 다변화 전략 지속 추진
 - EU 재건 기금 및 REPowerEU를 통한 자금 조달도 병행 중으로, 현재 까지 약 7.9억 PLN 수령, 2026년 추가 11억 PLN 확보 계획
 - 용량 시장을 통해 누적 약 160억 PLN 수익 확보, 약 4.7GW 규모 기존 및 신규(가스복합 Kozenice) 설비 운영 기반 확보
 - 그룹 내 석탄 자회사 Bogdanka 분리 계획은 현재 없으며, 연간 약 8백만 톤 생산 목표 유지
 - Enea는 에너지저장장치 중심 투자 확대와 계통·발전 인프라 병행 투자를 통해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 및 중장기 에너지 전환 기반 강화 추진 중
- 폴란드, 로컬콘텐츠 전략 통해 산업 자립 및 공급망 강화 추진(4.23)
- 유럽경제회의 논의에서 로컬 콘텐츠(local content) 확대가 국가 안보·경제 주권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며, 팬데믹·전쟁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필요성 부각
 - 정부는 에너지 부문을 시작으로 로컬콘텐츠 정책을 시범 도입 후 방산 등 타 산업으로 확대 계획, 공공·민간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목표
 - 로컬콘텐츠 도입을 위해 공공조달법(PZP) 개정은 불필요하며, '최저가' 중심이 아닌 '최적가치(best value)' 평가 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
 -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로컬콘텐츠 비중 확대 추진
 - PGE: 2035년까지 약 23백억 PLN 투자 중 약 15백억 PLN을 국내 기업에 배분 계획, 배전 부문 로컬 비중 85% 이상
 - Orlen: 해상풍력 1차 사업 21% → 차기 프로젝트 41%로 확대 목표
 - Tauron: 규제보다 기업 문화·인식 내재화 중요성 강조
 - Enea: 광업 부문 100% 근접, 배전 90% 이상, Kozenice 가스발전 프로젝트 약 75% 예상

· KGHM: 국내 조달 비중 약 98.5% 수준 유지

- 해상풍력(Baltica 2)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로컬콘텐츠 확대 추진 (약 25~30%), 관련 입찰 절차 다수 진행 예정
- 단순 설비 구축뿐 아니라 운영(O&M) 단계까지 포함한 현지 운영·유지 보수 역량의 중요성 부각
- 로컬콘텐츠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전제로 한 '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전략'으로 정의되며, 보호주의가 아닌 산업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접근
- 지역경제 발전과도 연계되어 산업 클러스터 및 지역 기반 공급망 강화 효과 기대
- 전반적으로 폴란드는 기존 제도 틀 내에서 로컬콘텐츠 전략을 본격화 하며, 에너지·인프라 중심으로 산업 자립도 제고 및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추진 중

○ 폴 재무부, 부동산 투자신탁(REITs) 도입 검토 중단(4.23)

- 폴 재무부는 현재 부동산투자신탁(REITs) 도입 관련 입법 작업을 진행 하지 않고 있으며, 정책 우선순위를 자본시장 활성화로 전환
- 정부의 핵심 자본시장 프로젝트는 개인투자계좌(Personal Investment Accounts, PIA) 법안으로, 내각 상임위원회 승인 완료 후 정부 의결을 앞둔 상태
- PIA 제도는 개인의 장기 투자 확대 및 자본시장 참여 유도를 목표로 하는 핵심 금융 정책 수단으로 설정
- 당초 2026년 7월 시행 예정이던 PIA 법안은 2027년 1월로 시행 시점이 연기되어 제도 설계 및 준비 기간 확보
- REITs는 임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나, 단기 정책 안건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상황
-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 구조 개선 및 투자 기반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중장기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
- 전반적으로 폴란드는 부동산 금융상품 도입보다는 개인 투자 활성화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 중

○ EU 집행위원회, 폴란드에 72억 유로 재건 기금 지급 승인(4.23)

- EU 집행위원회는 폴 국가재건계획 4차 지급 요청을 긍정 평가하고 72억 유로 규모 자금 지원 승인
- 총 30개 이정표와 13개 목표 달성 확인에 따른 것으로, 회원국 최종 승인 후 자금 집행 예정, 약 1개월 소요
- 해당 자금은 보건의료 개선, 행정 디지털화, 사이버보안 강화, 광대역 인프라 확충, 세제·노동개혁, 친환경 부문(수소·철도·지속가능교통) 등에 활용 예정
- 지급 조건으로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노동감독청(PIP) 권한 확대 개혁 포함
- 정부는 6월 1일 자금 수령 전망, 연내 총 약 1천억 PLN(235억 유로) 규모 투자 집행 계획

○ EU 집행위원회, 폴란드에 SAFE 방위대출 협정 초안 전달(4.24)

- EU 집행위원회는 SAFE 프로그램 참여 19개국 중 폴란드 포함 18개국에 대출 협정 초안 전달
- 해당 국가들의 국방 투자계획이 EU 집행위 및 이사회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, 향후 각국 국내 절차 종료 후 즉시 협정 체결 예정
-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폴란드가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며 SAFE 최대 수혜국이라고 강조
- SAFE 대출을 통해 폴란드는 430억 유로 이상 규모의 국방 프로젝트 재원 확보 전망
- 협정 체결 시점은 각국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4월 말~5월 초로 예상
- 이번 조치는 EU 차원의 동부 전선 방위 강화 및 회원국 국방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적 금융 수단으로 평가

○ 폴란드 제2 원전, 기술 공급 관련 3개국과 협의 진행(4.24)

- 에너지부 차관 브로흐나는 제2 원전 기술 공급 선정 관련 협의를 2027년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

- 현재 후보는 캐나다·미국·프랑스 3개국으로, 최종 기술 파트너 선정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
 - 원전 입지는 베우하투프(Belchatów)와 코닌(Konin)을 우선 검토하며, 포와니에츠(Połaniec)·코지에니체(Kozienice)는 대안 후보지로 고려
 - 입지 선정 역시 2027년 중반 결정 전망으로, 기술 선정과 병행 추진
 - 투스크 총리는 프랑스를 유력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언급하며 협력 가능성 시사
 - 폴란드는 원전 확대를 위한 기술·입지 검토를 병행하며 중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 추진 중
- **美 Pratt & Whitney, 폴란드 제슈프 공장 확장에 1억 달러 투자(4.23)**
- 美 항공 엔진 기업 Pratt & Whitney는 폴란드 제슈프 공장 확장을 위해 1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
 - 신규 설비는 기존 공장과 통합되며, 민간·군용 항공기 엔진(GTF, F135, F100 등)용 첨단 부품 생산 담당
 - 2028년 완공 및 본격 가동 예정이며, 약 140명 신규 고용 창출 기대
 - 고온(최대 1,000℃)·고속 회전 환경에서 작동하는 단조 부품 가공 역량 (열처리, 정밀가공, 검사 등) 확보가 핵심
 - 해당 투자는 모회사 RTX의 총 3억 달러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
 - 폴란드는 RTX의 미국 외 최대 생산·고용 거점으로, 약 9,400명 고용 (이 중 4,500명 제슈프 근무) 기반 확보
 - 전반적으로 항공·방산 등 핵심 부품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폴란드의 전략적 제조 허브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
- **폴란드 핀테크 ZEN.com, 우크라이나 국유화 은행 인수(4.23)**
- 폴 핀테크 기업 ZEN.com은 우크라이나 예금보장기금이 매각한 PINbank(First Investment Bank) 지분 100%를 약 360만 유로에 인수
 - 해당 은행은 러시아 사업가 Yevgeny Giner 소유였으나, 2023년 전쟁 관련 제재 조치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몰수 후 정리 절차 진행

- 이후 지급불능 상태로 임시 관리에 들어갔으며, 국가 주도의 부실 은행 정리 절차를 통해 매각 완료
- 폴 前 대통령이자 ZEN.com 감독이사회 일원인 Andrzej Duda는 이번 거래가 우크라이나 금융시스템 및 EU 통합 전망에 대한 신뢰 신호라고 평가
- ZEN.com은 향후 20백만 유로 이상 추가 투자하여 PINbank를 디지털 은행으로 전환, 해외 결제 서비스 및 다중통화 서비스 중심 사업 모델 구축 계획
- 우크라이나 예금보장기금은 이번 거래가 은행 구조조정 시스템의 실효성과 외국인 투자 유입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
- 이번 인수는 에스토니아 Iute Group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외국계 은행 진입 사례로, 기존 고객 계약은 유지 예정
-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금융 부문은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및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과 디지털 금융 전환을 병행 추진 중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Biopharma, Transcarpathia에 혈장 가공 공장 1단계 착공(4.14)

- 우크라이나 기반 제약기업인 Biopharma가 Transcarpathia 지역에 총 75백만 유로 규모 혈장 가공 공장 1단계 프로젝트 추진, 2026년 9월 가동 목표
- 본 시설은 의약품 및 면역생물학 제제 생산을 위한 현대식 공장으로, 헌혈 혈장 전 공정(Full-cycle) 처리 가능 설비 구축이 핵심
- 완공 시 유럽 내 최대 규모 혈장 가공 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,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기대
- 1단계 투자액 75백만 유로 중 약 67백만 유로 조달 완료, 프로젝트 재원 확보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
- 공장 가동 시 약 15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

- 해당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의 고급 의약품 자급률 제고 및 수입 의존도 감소를 주요 목표로 추진
 - 동시에 유럽·중동·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,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강화 목적
 - 전반적으로 본 투자는 전쟁 이후 산업 재건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됨
- **우크라이나 철도공사(UZ), 유로본드 채무 재조정 협상 결렬(4.14)**
- Ukrzaliznytsia(UZ)가 약 11억 달러 규모 유로본드 채무 재조정을 추진했으나,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 실패
 - 4월 1~8일 진행된 제한적 협상에서 UZ는 구조조정 조건을 제시했으나, 채권단은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안 제시도 보류
 - 채권단은 원칙적으로 합의 기반 구조조정에는 동의하나, 현 제안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기존 협상 방식(제한적 협의) 종료 결정
 - UZ는 향후 법률·재무 자문사와 함께 채권단과 협의를 지속하여 합의안 도출을 추진할 계획
 - 이번 구조조정은 화물·여객 수요 감소, 운영비 증가, 전쟁 관련 인프라 복구 비용 확대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대응 목적
 - UZ는 2026년 및 2028년 만기 채권 관련 약 45백만 달러 이자 지급을 유예(미지급)하며 2026년 1월 전면적 채무 재조정 착수 선언
 - 2026년 내 상환 예정 채무 의무 규모는 약 8억 유로에 달해 단기 유동성 부담이 상당한 상황
 - 이번 협상 결렬로 단기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, 향후 채권단과의 재협상 결과가 UZ의 재무 안정성 및 국가 철도 운영 지속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
- **Druzhba 송유관, 4월 말까지 부분 복구 및 가동 재개 추진(4.14)**
- 젤렌스키 대통령은 Druzhba 송유관의 주요 구간이 2026년 4월 말까지 부분적으로 복구되어 제한적 가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발표
 - 복구 수준은 완전 복구가 아닌 운영 가능한 수준의 부분 복구로,

원유 운송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 복원에 초점

- 저장 시설 복구는 장기 과제로 병행되며, 전체 인프라 완전 정상화에는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
- 복구 완료 시점은 2026년 4월 말로 설정되어 있으며, 이후 헝가리 등 인접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재개 가능성도 언급
- 우크라이나는 헝가리와의 실용적 관계 복원을 희망하며, 새로운 헝가리 정부와 협력 기반 구축 가능성도 시사
-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함께 정치·외교적으로는 EU 인접국과의 관계 안정 및 에너지 공급망 신뢰 회복이 핵심 목표로 부각
-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산 원유를 중·동부 유럽으로 공급하는 핵심 경로로, 유럽 에너지 안보 및 지역 정제 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임

○ 우, 독일과 바이오메탄 수출·탄소규제 대응·첨단기술 협력 강화(4.15)

- 우크라이나는 EU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독일의 저탄소 가스 쿼터제 법제화가 완료되는 즉시 농업 기반 바이오메탄을 독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
- 양국은 우크라이나 에너지·환경·농업부 장관과 독일 환경·기후보호부 및 연구기술부 장관 간 회담을 통해 에너지 전환 및 산업 협력 전반을 논의
- 독일 측은 우크라이나의 국가 배출권거래제(ETS) 검증 체계 인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며, 향후 탄소배출 인증 기반으로 인한 수출 차단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
-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적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철강 산업이 과도한 탄소 배출 평가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, 독일의 기술적 검토 지원을 요청
- 특히 우크라이나 철강은 스크랩 기반 전기로 생산 비중이 높아 실제 탄소 배출이 과대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

- 첨단기술 협력 분야에서는 AI, 양자기술, 바이오테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논의되었으며, 우주산업 및 이중용도 기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도 제안
- 또한 스타트업 지원 기관 설립 및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시범 사업 추진이 논의되었으며, 관련 협력은 URC 2026(그단스크 개최 예정)에서 양자 문서로 공식화될 예정
- 미·우 재건펀드, 2026년 여름 2차 투자 프로젝트 승인 예정(4.15)
 - 우크라이나-미국 공동 재건펀드(총 2억 달러 규모)는 2026년 여름 두 번째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이며, 에너지 부문이 유력 투자 대상
 - 해당 펀드는 2025년 미·우크라 광물 협력 합의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, 핵심 광물·에너지·인프라·기술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목표
 -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 예고르 페렐리긴 주도 하에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(DFC)와 협력이 진행 중이며, 펀드 운용 및 투자 범위 확대 논의도 병행
 - 2026년 3월에는 리비우 기반 통신·항법 기술 기업 Sine Engineering에 대한 1차 투자 집행 완료
 - 2026년 내 3번째 투자 프로젝트 승인도 예상되며, 연말까지 총 2억 달러 규모 자금 조성 목표
 - 본 펀드는 공공-민간 협력(PPP) 모델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및 보험 연계 구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조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
 - 특히 에너지 인프라는 러시아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핵심 분야로, 향후 투자 확대 시 전력망 복구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직접적 기여 전망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보험사와 협력하여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보증(보험) 체계 구축도 추진 중
 - 해당 펀드는 미국 자본과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및

장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금융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

○ EU, 방위산업 공동 연구개발에 10.7억 유로 투자 및 우크라이나 협력 확대(4.15)

-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유럽방위기금(EDF) 공모 결과에 따라 총 57개 방위 프로젝트에 약 10.7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
- 이번 투자는 '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'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, 주요 전략 프로그램(유럽 드론 방어, 동부전선 감시, 유럽 방공망, 우주 방어체계) 개발을 핵심 축으로 추진
- 선정 프로젝트는 AI, 사이버 방어, 드론 및 對드론 시스템 등 첨단 방위 기술 분야 전반을 포괄
- EU는 키이우 소재 방위혁신사무소(EU Defence Innovation Office)기반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, 유럽 방산 산업 생태계 내 통합을 추진
- 대표 프로젝트인 Project STRATUS는 드론 군집 대응을 위한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, 우크라이나 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여 실전 경험을 기술 개발에 반영
-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드론 탄약 대량생산 관련 프로젝트에서 하위 공모 방식을 도입, 기업당 최대 6만 유로 지원을 통해 신규 방산 기업 진입 유도
- 우크라이나 기업도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, 전시 경험 기반 기술의 EU 방산 시장 유입 촉진 기대
- 유럽방위기금(EDF)은 2021~2027년 총 73억 유로 규모로 운용되는 EU 핵심 방산 R&D 지원 수단으로, 회원국 간 협력 및 기술 자립성 강화에 기여

○ 우 정부, IFC와 에너지·교통·물류 분야 우선 투자 프로젝트 협력 논의(4.20)

- 우 정부는 국제금융공사(IFC)와의 회의에서 에너지, 교통,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국가 우선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식 제시
- 1단계는 국영 에너지 기업 대상 투자로, 설비 조달 자금 확보, Naftogaz 그룹의 자산 복구, 장기 인프라 개발 방안 등이 핵심 논의 대상

- 물류 인프라 및 도로 건설 분야에서 공공-민간 협력(PPP) 프로젝트 확대 가능성 검토
 - 흑해 Chornomorsk 항만 터미널에 대한 양허 입찰 추진 과정에서 IFC 참여 방안도 협의
 - 국영 철도기업 Ukrzaliznytsia의 재무 안정화 및 2026년 7월 만기 유로본드 상환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가능성 논의
 - IFC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
 - 투자 유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경제 투명성 제고 및 구조개혁 지속 필요성 강조
 - 전반적으로 전후 재건 및 핵심 인프라 복구를 위한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전략으로 평가됨
- 우 정부, 오데사 항만화학공장 민영화 재추진 및 드니프로 비료공장 매각 진행(4.20)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 항만화학공장(Odessa Portside Plant, OPP) 민영화를 2026년 여름 재추진할 계획이며, 작년 가을 매각 시도는 무산된 바 있음
 - OPP는 암모니아, 요소, 액체질소 등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영 화학기업으로, 흑해 항만 및 러시아 연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인프라 자산
 - 현재 서방 3개국 및 중동 1개국 등 총 4개 잠재 투자자가 관심을 표명한 상태
 - 최근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글로벌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가치 및 투자 매력도가 재부각
 - 다만 복잡한 운영 구조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과거 6차례 민영화 시도가 모두 실패한 이력 존재
 - 한편 파산 상태인 드니프로 광물비료공장은 별도 매각 절차 진행 중
 - 해당 자산은 건물 114동, 설비 2,666점, 동산 1,726건, 차량 22대 및 약 원1.42억 규모 채권 등으로 구성

- 최초 매각가는 2305백만(약 690만 달러)이며, 유찰 시 최대 77% 할인된 269.5백만(약 157만 달러)까지 가격 조정 가능
 - 전반적으로 국영 화학·비료 산업 구조조정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재편 시도로 평가됨
- 스위스·세계은행, 우크라 철도 현대화 협력 합의 체결(4.19)
- 스위스는 세계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우크라이나 철도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며, 전후 경제 회복·무역 촉진·고용 창출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건 참여를 확대
- 우, 투자 프로세스 구조 개편 통해 국제자금 유치 체계화 추진(4.20)
- 우크라 정부는 공공투자관리 개혁을 통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국가 단위 '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반 투자 체계'로 전환 추진
 - 핵심 제도는 Project Preparation Facility(PPF) 도입으로, 투자 아이디어를 국제금융기관이 즉시 검토 가능한 실행 준비형 프로젝트로 전환
 - 프로젝트는 ▲전략 ▲프로그램(에너지·물류 등) ▲산업 등 3단계로 구분해 선정 및 관리
 - 기존에는 문서 미흡 및 국제 기준 미충족으로 자금 조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, 신규 체계는 이를 사전 단계에서 해소
 - 표준화된 프로젝트 리스트와 경제성 검증을 통해 국제 투자자의 의사 결정 속도 및 예측 가능성 제고
 -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분절적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 기반 단일 투자 파이프라인 체계로 전환 중이며, 재건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됨
- 우크라이나 산업부동산 건설 회복세, 연 20% 성장 지속(4.21)
-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산업 인프라는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, 2023년부터 서부·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부동산 투자 및 건설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는 중
 - 2025년 기준 산업용 건축물 준공 면적은 약 85.3만㎡로 전년 대비 23% 증가했으며, 2024년에도 16%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

성장세 유지

- 특히 산업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건설 부문 내 핵심 성장 동력으로, 전체 비주거 건설 중 산업용 비중이 2021년 20~22% 수준에서 2024~2025년 약 37%로 확대
- 2024~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이전 중심에서 벗어나 완전한 신규 건설 중심으로 구조 전환, 투자 성격이 질적으로 고도화 되는 추세
- 대표 프로젝트로는 볼린 지역 Avesterra Group 가금류 가공공장 (약 60백만 유로), Nestlé 파스타 공장(42백만 유로), 자카르파티아 지역 냉동 베이커리 공장(약 7.7백만 유로) 등이 있음
- 2022~2025년 81개 프로젝트 분석 결과, 중간 투자 규모는 10백만~25백만 달러 수준이며, 대형 프로젝트가 평균값을 50백만~70백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조
- 산업 구조는 식품(18건), 방산(16건), 전자재(10건), 에너지·기계(각 9건) 순으로 분포하며, 방산 및 식품 산업 비중 확대가 특징
- 자금 조달 구조는 약 60%가 우크라이나 국내 자본, 해외 자본은 독일, 아일랜드, 오스트리아, 미국 등 국가가 전자재 및 라이선스 제조 분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참여
- 지역별로는 키이우(32.3%), 리비우(19%), 자카르파티아(7.1%)가 산업 건설을 주도하며, 서부 지역이 핵심 산업 허브로 급부상
- 반면 하르키우·자포리자 등 동부 산업 지역은 전쟁 리스크로 신규 프로젝트 전무 수준으로 급감, 산업 중심축의 서부 이동 구조가 고착화
- 현재 사전 단계 산업 프로젝트 면적은 118만㎡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, 2024년 기준 전체 계획 규모는 2021년 대비 35% 높은 수준으로, 중장기 파이프라인은 전쟁 이전 수준을 상회
-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계획 프로젝트로 Kingspan(2.8억 유로 규모 전자재 캠퍼스), NovaSklo(2.4억 유로 유리 공장), Potato Agro(1.1억 달러 감자 가공 공장) 등이 추진 중
-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며, 2025년 기준 37개 공장이

건설 또는 준공 상태(22개 준공, 15개 건설 중)

- 산업단지는 세제·관세 면세 제도, 인프라 접근성, 전력·물류 기반 제공을 통해 제조업 투자 유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
- 대표 사례인 Bila Tserkva 산업단지는 20개 입주 기업을 보유하며, 2025년 핀란드 Peikko 등 외국 기업 생산시설도 가동 시작
- 예비 전력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형태로 신규 공장 설계가 진행되며, 전쟁 리스크 대응형 산업 개발 모델이 확산
-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산업 부동산 시장은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20% 성장세를 기록하며 회복 국면을 넘어 구조적 재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

○ 우 DTEK, 폴타바 650MW 풍력단지 포함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추진(4.23)

- 우 DTEK은 폴타바 지역에 650MW 규모 육상 풍력단지(약 100기 터빈) 건설 계획을 공식화, 총 투자 규모 약 12억 유로
- 해당 사업은 자회사 DTEK Renewables가 주도하며, 덴마크 Vestas가 터빈 공급을 담당하는 유럽형 대형 풍력 프로젝트
-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하고 분산형·친환경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는 핵심 재건 사업으로 평가
- 프로젝트 완료 시 평균 가동 기준 약 200MW 전력 공급 효과로, 겨울철 약 7GW 전력 부족 완화에 일부 기여 예상
- 현재 우크라이나는 약 4GW 규모 인허가 완료 풍력 프로젝트가 자금 및 장기 구매계약 부재로 미착공 상태
- DTEK는 이미 미콜라이우 지역 384MW 풍력단지 운영 및 추가 확장 진행 중이며, ESS(200MW급) 및 전력망 현대화 투자도 병행
- 전쟁 이후 DTEK은 누적 약 24억 유로 투자, 연간 투자 확대(약 9.6억 유로) 등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투자자로 자리매김
- 투자 분야는 화력 복구, 재생에너지, 전력망 현대화, 가스 생산 등으로 다변화되어 전력 시스템 복원과 에너지 다원화 전환 동시 추진
- 해당 프로젝트는 전력 인프라 재건,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안보 강화

및 EU 에너지 시장과의 통합 기반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 사업으로 평가됨

○ 영국 Elementum Energy, 오데사주 풍력발전 투자 프로젝트 추진(4.22)

- 오데사주 군정청(Odesa Regional Military Administration)이 영국 에너지 기업 Elementum Energy와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지역 에너지 지속가능성 강화 추진
- 해당 기업은 기존에 드니에스터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며, 약 9.3만 가구에 전력 공급하는 등 지역 내 에너지 시장에서 활동 지속
- 신규 협력의 일환으로 오데사 지역 내 3개 풍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이며, 전시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 진행 중
- 총 투자 규모는 약 90백만 유로로, 풍력 기반 발전용량 확대를 통한 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목적
- 투자사는 발전사업 외에도 지역 인프라 현대화, 교육 및 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 병행 예정
- 오데사 주지사는 에너지 시스템 분산화가 핵심 정책 과제임을 강조, 지역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중앙 전력망 공격에 대한 취약성 완화 기대
- 투자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, 에너지 독립성 강화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 효과 기대

○ BGV Development, 주거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3억 달러 규모로 확대(4.22)

- 우크라이나 부동산 개발사 BGV Development가 파트너십 기반 주거 개발 사업을 확대하며 총 투자 규모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
- 2026년 4월 Zhytomyr 지역 'Manhattan' 주거단지(3개 동, 774세대) 신규 진출, 지역 개발사 ArtHouse Group와 첫 협력 프로젝트로 공동 투자 구조(지분 50:50) 적용
- 동 프로젝트에서 BGV는 투자 보증 및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고, 파트너사는 설계·운영·시공 등 실행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
- 해당 사업 포함 BGV의 전체 주거 포트폴리오는 약 2,500세대 규모로 확대

- 키이우(Kyiv) 지역에서는 Saga Development와 협력하여 'Boston Creative House'(2개 타워 644세대 + Circle Hotel 382객실) 개발 추진
 - 추가로 'Ozon Concept House'(4개 동, 1,088세대) 재개발 프로젝트도 준비 단계로, 중장기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
 - BGV의 단독 개발 사업으로는 키이우 인근 Lisnyky 지역 'Equides Villas' 전원형 주거단지 프로젝트 보유
 - Manhattan, Boston, Ozon 등 주요 프로젝트 총 투자 규모는 파트너 및 향후 투자자 자금 포함 약 3억 달러로 추산
 - BGV는 향후 단순 투자 참여를 넘어 독자적 개발사로서의 사업 영역 확대를 목표로 하며, 우크라이나 주거 시장 내 입지 강화 전략 추진
 - 전반적으로 파트너십 기반 리스크 분산 및 단계적 개발 역량 축적을 통해 중대형 주거 개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평가됨
- EU, 우크라 긴급 복구에 6억 유로 지원 및 기업대출 보증 확대(4.23)
- 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(EIB)은 우크라이나 긴급 복구를 위해 총 6억 유로 규모 재원 지원 결정
 - 이 중 4.5억 유로는 EU 보증 기반 자금으로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되며, 1.5억 유로는 보조금 및 기술 지원 형태로 제공
 - 지원 대상은 도로·철도 인프라 복구, 전력망 현대화, 주거·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, 도시교통 및 교육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중심
 - 단기 복구와 함께 장기 구조개혁 및 공공서비스 유지 역량 강화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특징
 - 아울러 EU는 EBRD와 총 3.63억 유로 규모 보증 협약 2건 체결, 우 기업 금융 접근성 확대 지원
 - 해당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약 29억 유로 규모 신규 대출 창출 기대
 - 스타트업, 중소기업(SME), 중견기업(mid-cap)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민간 경제 회복 기반 강화
 - 특히 전쟁 피해를 보전하는 '전쟁 손실 보증 메커니즘'을 도입, 기업의 전쟁 리스크를 EU가 일부 흡수하는 구조 설계

- 본 프로그램은 전시 상황에서도 민간 투자 및 기업 활동을 유지·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금융지원 모델로 평가

○ 우크라이나 리비우 인근 상업·물류 인프라 개발 확대 추진(4.23)

- 리비우 외곽 Rzasne-Ruske 지역에 도로 인접형 상업·사무실·정비시설이 결합된 복합 상업 단지 건설 계획 추진
- 해당 시설은 리비우 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하며, 1~2층 규모의 현대식 상업 및 업무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
- 리비우시는 공항 인근 대규모 주거개발 대안으로 물류·상업 중심 개발 모델을 제시하며 공항 기능 강화와 연계 추진
- 주요 계획에는 공항 화물터미널 건설, 활주로 연장 가능성 확보, 항공기 10대 규모 주기장 조성 등이 포함
- 약 35헥타르 규모 부지에 대형 상업시설 및 물류 인프라를 배치하여 공항 물류 기능과 시너지 창출 목표
- 해당 프로젝트는 최대 약 1만 명 고용 창출 및 약 5.4억 흐리우나(약 12.5백만 달러) 수준의 지방세 수입 유발 효과 기대
- 전반적으로 리비우 지역은 전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부 지역 중심으로 상업·물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, 중장기 경제 회복 및 지역 개발 핵심 축으로 부상

○ EU 4개국, 우크라 재건·안보에 1.75억 유로 공동 투자 추진(4.23)

- 폴란드·핀란드·프랑스·체코는 EU 집행위원회 지원 하에 우크라 재건 및 안보 강화를 위한 175백만 유로 규모 공동 투자 합의
- 민군합작 프로젝트 중심 투자로, 재건과 방위 역량 강화 동시 추진
- 폴란드 BGK, 체코 국립개발은행, 핀란드 Finnvera, 프랑스 Bpifrance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
- 금번 협력은 우크라이나 지원 금융 프로그램(Ukraine Facility) 기반 투자로, 폴란드의 참여 확대 계기 마련
-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對우크라 수출(연 130억 유로 이상)과 연계해 재건 허브 역할 강화 기대

- 전반적으로 EU 주요국 간 공동 금융을 통한 우크라 재건·방산 협력 및 역내 산업 연계 확대 흐름 지속
- 우 Kernel, EBRD 지원으로 우크라 남부 106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(4.23)
 - EBRD는 우크라이나 Kernel에 약 45백만 달러 대출을 제공해 10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(SPP) 건설 지원
 - 총 프로젝트 비용은 약 86백만 달러로, EBRD 외 추가 국제금융기관 및 기업 자체 자금으로 조달 구조
 - EU는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(UIF)를 통해 부분적 투자 리스크 보증 제공
 - 해당 사업은 남부 우크라이나에 건설되며 연간 약 141GWh 전력 생산 및 CO₂ 약 8.25만 톤 감축 효과 기대
 - 우크라이나 통합 전력계통에 편입되어 내수 전력 공급 역할 수행 예정
- EU·우크라, 10억 유로 투자 및 900억 유로 대출 병행 추진(4.23)
 - 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는 브뤼셀에서 열린 EU-우크라 경제 협력 회의에서 10억 유로 이상 규모 금융·투자 계약 체결
 - 대출·보증·보조금 결합 구조로 에너지·인프라·재건·첨단기술 및 방산 분야 투자 확대 지원
 - EU는 16.1백만 유로 보증·보조금을 통해 드론·우주·군수부품 등 신기술 분야 최대 4억 유로 투자 유도
 - EU-우크라이나 국방부 협력 선언을 통해 방산 금융지원 및 산업 통합 강화, 방위산업을 전략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
 - 유럽투자은행(EIB)은 재건 프로젝트에 5억 유로 이상 지원, EBRD는 중소기업 대상 3.6억 유로 금융 및 최대 34억 유로 민간 투자 유입 촉진
 - EU는 별도로 900억 유로 대출 패키지(2026~2027)를 추진 중이며, 약 600억 유로를 방위 분야에 배정
 - 해당 대출 패키지는 재정 안정 및 군사 지원 핵심 재원으로, 회원국 합의 및 헝가리 반대 철회로 승인 절차 가속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6. 3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(주요동향) '26.3월 말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업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 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4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투자계약 체결(KIND→ZETI)
'26년 5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, SPA 체결(KIND→ZETI)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.4. Phase II 잔여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인 협상

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(주)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피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5.4.1 ~ '25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
'26. 5월 현지조사 수행
'26. 6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

- (주요동향) 루블린 시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(4.28.) 및 솔루션 적용 가능한 시범 지역 후보지 현장 조사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재 등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현지 착수보고회 및 현장조사 수행 예정 ('25.3월)